

내년 광주 세계수영대회 예산 확보 '청신호'

민주당 이어 이낙연 총리도 국회 답변서 추가 지원 약속 세계 5대 스포츠 불구 예산규모 평창올림픽의 3.7% 수준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추가 예산 확보에 파란불이 켜졌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광주를 찾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데 이낙연 국무총리도 국회 답변 과정에서 국비 추가 지원을 강조했다.

7일 광주시는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대회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여당의 지원 약속에 이어 이낙연 총리도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피력해 사업 추진에 불씨가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 질의에 나선 송갑석 의원은 이낙연 총리에게 예산상 어려움을 설명하고 "평창에서 시작

된 스포츠를 통한 남북교류와 평화의 메시지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통해 성공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범정부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세계 5대 메가스포츠 대회로서 2019년 국내에서 개최되는 유일한 국제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의 비협조적 태도로 기간 개최됐던 타 국제 대회에 비해 사업비가 현저하게 적다"고 지적했다. 또 "평창에서 시작된 스포츠를 통한 남북 교류와 평화의 메시지가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통해 성공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범정부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에 이 총리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내년 국내 유일 국제대회로서 국비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회에서 합의해 준다면 지원 가능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광주시는 애초 국비 482억원을 포함해 1697억원이던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총사업비를 국가지원 295억원(국비 169억원·기금 126억원) 등 538억원 늘어난 2235억원으로 증액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광주시는 지난 정부와 총사업비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항공료와 호텔 객실 단가 등 운영비가 지나치게 과소계상됐고, 세계수영연맹 요구와 여건 변동에 따라 누락·추가 항목이 발생해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5대 세계 스포츠 중 하나인데도 예산 규모가 평창올림픽의 3.7%밖에 안 되고, 가장 적게 지원한 2011년 대구 육상선수권대회의 41.8%밖에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내년에 국내에서 별다른 국제행사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도 광주시로서는 예산 추가 확보의 이유로 꼽고 있다.

광주시는 늘어난 예산으로 수경경기장 변경과 관람석 증가에 103억원, 주경기장 진입도로 사면보강에 39억원 등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의 이 같은 예산 추가 지원 요청에 지난달 24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코리아-유라시아 로드런 이동식 무대 차량

“광주송정역~유라시아대륙 평화 길 열어요”

코리아-유라시아 로드런 10일 송정역 광장 첫 공연

광주 광산구가 송정역에서 시작해 휴전선을 지나 북녘땅을 경유, 유라시아 대륙까지 연결하는 육로를 조성하기 위한 문화예술 퍼포먼스를 개최한다.

7일 광산구에 따르면, 오는 10일 송정역 광장에서 '길을 열어요'라는 문화·예술 퍼포먼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코리아-유라시아 로드런' (이하 '로드런', 이사장 이계양) 이 주관하고 아시아문화원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후원한다.

'로드런'은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평화를 주제로 문화·예술 공연을 열고, 여기에 참가한 시민의 호응과 열기를 바탕으로 휴전선-북녘땅-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평화 길 조성의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이번 광주송정역 공연은 그 대장정을 시작하는 첫 바퀴를 굴리는 무대로, 내년부터서는 이동식 무대 차량을 이용해 전국 50개 도시 투어를 계획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프로젝트의 의미가 더 깊도록 주최측과 상호 협의하여 민주·인권·평화의 도시인 광주를 선택해 호남을 대표하는 기차역인 광주 송정역에서 첫 행사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 문화예술과(062-960-8833), '로드런' (062-651-0815)에서 한다.

/최승철 기자 srchoi@kwangju.co.kr

"KTIX 호남선 최단노선 신설" 호남권 9개 상공회의소 촉구

광주상공회의소 등 호남권 9개 상공회의소는 7일 "천안에서 세종을 거쳐 공주로 이어지는 KTIX 호남선 최단노선을 신설하라"고 촉구했다.

호남권 상의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KTIX 운행횟수 증가로 경부선과 호남선 분기구간인 평택~오송 선로가 포화상태"라며 "정부가 이 구간 복복선화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데 최단노선 신설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2005년 호남선과 경부선 분기역이 오송역으로 결정돼 호남지역 이용객은 18.97km 구간을 우회하면서 요금도 3천 원 더 내고 있다"며 "잘못된 결정을 이변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에는 광주·전주·목포·익산·순천·군산·여수·전북 서남·광양 상공회의소가 참여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한국 한의학 연구원 한약자원연구센터 개소식 한국 한의학 연구원 한약자원연구센터 개소식이 7일 동신대학교에서 열렸다. 한국한의학연구원 김중열 원장, 윤병태 전남대 정무부지사, 강인규 나주시장, 최일 동신대 총장, 한약자원연구센터 문경철 센터장 등 참석자들이 센터 시설물을 둘러보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 아파트 신축현장 인근 학교 교육영향평가 부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식재료 납품업체 위생점검도 부실

광주지역 아파트 신축 현장 인근의 학교에 대한 교육영향평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학교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기초학력 부진학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광주시의회 이경호(민주·북구2) 의원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학교 인접지역에서 공사 진행 중인 곳은 모두 6곳으로 나타났다. 북구 서림초와 북성중, 남구 대

촌중, 광산구 정광고와 자동화설비공고, 동구 광주고의 학교 경계와 맞닿은 곳에서 아파트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교육영향평가를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인가가 났거나 기존 규모에 미달해 평가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시행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교 경계 반경 200m 이내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2층 규모 연면적 10만㎡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

해서는 교육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경호 의원은 "학교 옆 공사로 인해 등하길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통학로 설치, 등하교 시간을 피한 공사차량 출입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순애(민주·서구2) 의원은 이날 광주시교육청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1년에 두 번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식재료 납품업체 위생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식중독 등 학교급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학교별 식재료 납품업체 위생 점검은 한국농

수산식품유통공사 운영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 이용학교는 연2회, 나라장터 이용학교는 매월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10월이 지나서야 첫 점검을 실시한 학교가 10곳에 이르며, 조사 이후에야 점검을 나간 학교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다수의 학교가 두 번째 점검을 11월이나 12월로 계획, 학사일정이 끝나는 시점에서야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최영환(민주·비례) 의원에 이날 "광주시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지도 대상 수는 감소함으로써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26일 광주 미세먼지안전실천본부 발대식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을 감시하는 광주시 시민감시단이 발족했다.

광주시는 7일 "미세먼지안전실천본부" (푸른하늘리더단) 발대식을 오는 26일 시청에서 연다.고 밝혔다.

실천본부에 참여하는 45명은 환경단체, 자원봉사 경력이 있거나 봉사활동에 나선 학생들이다.

이들은 광주지역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364곳에서 감시 활동을 한다.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건설현장, 유탄물질 취급 업소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또 미세먼지 발생 정도가 주의를 발령 수준(2시간 이상 150㎍/㎥)으로 측정되면 시 단속반과 함께 해당 사업장의 시설 점검을 하고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 관련 각종 캠페인 및 홍보 활동을 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친다.

활동 기간은 2년이며 우수 활동자에게는 연말 시상 표창이 수여된다. 자원봉사 시간이 인정되고 교통 실비도 지급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돌봄이웃 집 환경개선 '사랑의 보금자리' 1호 입주식

광주시는 7일 서구 서창동에서 돌봄이웃(주거약자)의 집을 무료로 고쳐주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사랑의 보금자리' 제1호 입주식을 가졌다.

이 사업을 위해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사업 대상을 추천하고 현장 실사를 진행한 후 형편이 어렵고 노후가 심각한 9가구를 선정할 바 있다.

수리비 1억원은 대한주택건설협회 광

주전남도회가 부담한다.

제1호 사랑의 보금자리는 서구 서창동에 거주하는 김모(69) 할머니의 주택으로, 김 할머니 주택은 천장 일부가 붕괴 위험에 노출되고 창호가 노후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열악했다. 나머지 8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은 연말까지 마무리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본 부지는 고적지이며 용기 위해 재건축예정이며,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New Square

- >> 이마트 에브리데이 입점확정
- >> 리빙코리아 입점확정
- >> 커피전문점 입점확정
- >> 네일아트, 속옷 매장 입점확정



용산타워

- >> 편의점, 돈까스전문점, 치킨오피스, 이동통신 등 업종 선입대 완료
- >> 멀티역세권, 교통망확보
- >> 2~4층 주차타워! 총 77대 확보



조은프라자

- >> 용산지구 리스빌 정문, 모아엘가 우문, 대성베르빌 정문 바로앞 상가
- >> 상가건물 3면 도로와 인접
- >> 상층부 상가건물의 희소성

봉선동 남부경찰서 바로옆 용산지구 4,000여 배후세대 상권!!

300여평 초대형 이마트 에브리데이

분양 임대 1899-8947

시행 | (주)SB빛가람 · (주)성원 · (주)조은플러스
시공 | 기보종합건설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 655-6544

062) 362-3336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산수오거리지점

돌고개지점